

호남석유화학, 2010 경영대상 수상

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이 능률컨설팅협회가 주관하는 경영대상을 수상했다.

한국능률협회컨설팅(KMAC)은 10월12일 오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<2010 한국의 경영대상> 수상식을 가졌다.

존경받는 기업대상 부문에서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전력기술이 대상 수상자로 뽑혔고, 인재경영대상은 LG화학에 돌아갔다.

이노베이션리더십 부문에서는 호남석유화학, 롯데마트, 코엑스, 동우화인켐, 코스텔, 한라공조 등 11사가 수상했다.

고객만족경영대상은 삼성화재해상보험, 우리은행, 신한카드, 롯데홈쇼핑 등 9곳이 받았고, SK네트웍스와 하림은 마케팅대상의 영예를 안았다.

품질경영대상은 다스, 생산성대상 수상자는 STX조선해양과 남양공업으로 결정됐다.

뛰어난 리더십으로 혁신활동을 한 최고경영자에게 주는 최고경영자상은 삼성화재의 지대섭 대표이사 사장과 현대해상의 서태창 대표이사 사장이 받았다.

40개 수상기업 가운데 금융기업이 8곳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10/10/12>